

본당 소식

♣ 환영합니다.

- 안식년 중이신 박근호 알렉산델 신부님(2000년 서품, 대구대교구)께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7,8월 휴가철 관계로 각종 회의 및 모임은 없습니다.

♣ 제36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쇄신 목상회 안내

- 주제 :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에페 6,17)
- 일시 : 2026년 09월 02일(수) ~ 09월 05일(토)
- 장소 : Kardinal Schulte Haus, Overather Str. 51-53, 51429 Bergisch Gladbach
- 회비 : 독방 270유로, 일반 250 유로, 학생 190 유로
- 신청 : 2026년 07월 12일까지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49.0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51 (주여 임하소서)
152 (오 지극한 신비여)

파견 : 286 (순교자의 믿음)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도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7월 5일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신심 미사

본기도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 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 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ㄴ)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18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19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21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22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3-4,8-11)

형제 여러분,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오 10,37-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저희가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주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웃 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따르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 나눔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가 이 운동에 함께하며 많은 이와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이를 굽어살피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와 배려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일찍이 복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가 지녔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온갖 시련을 이겨 내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